

광주·전남 중장년 재취업 '굴착기·한식·건축도장' 몰렸다

지난해 국가기술자격시험 3개종목 취득자 50세 이상 가장 많아
50세 이상 실업자 1년 새 2000명 증가...현장 즉시 투입 직종 선호

중장년 재취업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으면서 지난해 국가기술자격시험 광주·전남 취득자 상위권에 든 굴착기운전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건축도장기능사 등 3개 종목이 50대 이상 합격자가 가장 많았다.

20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시험 지역별 자격취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에서 자격취득자가 가장 많은 종목은 지게차운전기능사(광주 3062명·전남 3941명)로 집계됐다.

지게차운전기능사는 5년 연속 광주·전남에서 취득자가 가장 많은 종목으로 꼽혔다. 지난해 광주 취득자는 전년보다 8.5%(239명) 늘었고, 전남은 0.3%(11명) 줄었다.

지난해 광주에서는 지게차운전기능사에 이어 산업안전기사 1533명, 전기기능사 1388명, 건축도장기능사 942명, 굴착기운전기능사 818명, 전기기능사 779명, 한식조리기능사 671명, 정보처리기사 667명, 미용사(일반) 592명 등 순으로 취득자가 많았다.

전남은 산업안전기사 1982명, 굴착기운전기능사 1783명, 산업안전산업기사 1424명, 전기기능사 1372명, 위험물산업기사 941명, 한식조리기능사 575명, 건축도장기능사 550명, 전기기능사 507명 등이 뒤를 이었다. 전남에서는 지난 2024년에 상위권에 들었던 건설안전기사(598명)와 환경기능사(558명)가 순위에서 빠지고 지난해 건축도장기능

■ 광주·전남 국가자격시험 취득자 현황 (단위:명, 자료:한국산업인력공단)

◇ 광주	◇ 전남		
종목명	자격취득 현황	종목명	자격취득 현황
지게차운전기능사	3062	지게차운전기능사	3941
산업안전기사	1533	산업안전기사	1982
전기기능사	1388	굴착기운전기능사	1783
건축도장기능사	942	산업안전산업기사	1424
굴착기운전기능사	818	전기기능사	1372
전기기사	779	위험물산업기사	941
한식조리기능사	671	한식조리기능사	575

사, 전기기사가 상위권에 들었다. 전기기사는 1년 새 취득자가 광주 20.8%

(134명)·전남 17.1%(74명) 늘며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다.

취득자 상위권에 든 종목 가운데 굴착기운전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건축도장기능사는 50대 이상 취득자가 가장 많았다.

굴착기운전기능사 50대 이상 합격자는 39.0%(광주 304명·전남 710명)에 달했고, 한식조리기능사 38.9%(광주 268명·전남 217명), 건축도장기능사 32.5%(광주 296명·전남 189명) 등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지게차운전기능사 합격자 가운데 50대 이상은 광주 852명·전남 961명 등 1813명으로, 전체의 25.9% 비중을 차지했다. 20대 취득자 비중 27.2%(1902명)과 비슷한 규모였다.

전기기능사 25.6%(광주 424명·전남 283명)와 전기기사 21.3%(광주 173명·전남 101명) 종목도 50대 이상 취득자가 두드러졌다.

급변하는 산업 생태계에서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며 중장년층은 재취업을 위해 국가자격증 시험장에 몰리고 있다. 중장년층은 자격을 딴 뒤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고 나이 제한이 없는 직종을 선호하는 추세다.

국가데이터처 지역별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50세 이상 실업자는 광주 7000명·전남 1만2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17.5%(1000명), 8.2%(1000명) 늘었다. 전국 50세 이상 실업자는 27만7000명으로, 1년 새 10.7%(3만3000명) 줄었다.

대한건설협회가 지난 16일 발표한 '건설업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9월 기준 노임단기가 전년보다 가장 많이 오른 직종은 원자력품질관리사였다. 이 직종 평균 노임단기는 28만5759원으로, 전년보다 5.7%(1만5383원) 올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GGM 올해 첫 공채에 1596명 몰려...경쟁률 34대 1

2교대 전환 무산 일자리 실종 비판도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올해 첫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 1600명에 가까운 지원자가 몰리면서 지역 청년 취업난 속에서도 GGM이 사실상 '유일한 희망 일자리'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하지만 노사 갈등과 최대 주주인 현대자동차의 소극적인 태도로 2교대 전환에 잇따라 무산되면서 수백 명의 신규 일자리와 생산 확대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20일 GGM에 따르면 지난 19일 마감된 2026년 1차 기술직·일반직 신입·경력 채용에 1596명이 지원하며 평균 경쟁률 34대 1을 기록했다. GGM이 2021년 대규모 채용 이후 매년 두 차례 공채를 이

어으며 지역 취업난에 '단비'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공급보다 훨씬 큰 수요가 몰리면서 고용 확대의 구조적 한계도 동시에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광주·전남 취업 시장은 롯데칠성 광주공장 폐쇄 추진과 전자·건설업 침체, 여수 석유화학단감산까지 겹치며 사실상 '빙하기'에 들어섰다. 이런 상황에서 GGM 공채에 몰린 1596명은 지역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제조업 일자리가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다.

문제는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노사 갈등과 대주주의 미온적 태도로 기회를 계속 놓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GGM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단일 근무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업계는 2교대 체제로 전환할 경우 직

접 고용만 400여명, 협력 업체까지 포함하면 최대 1000명 규모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추진됐던 2교대 전환은 노조의 전면 파업과 불안정한 노사 관계 속에서 끝내 무산됐다. 당시 지역 정치권과 경제계, 광주시까지 나섰지만 노사 간 대립과 현대차의 소극적인 태도로 원점으로 돌아갔다.

GGM 관계자는 "올해 2교대 근무가 시행됐다면 400여명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었는데 무산돼 너무 안타깝다"며 "2교대 전환을 이뤄내야 직간접 고용 1000여명 창출과 지역 청년 정착이라는 설립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전남 전문건설협회 "건설산업 불공정 경쟁에 벼랑 끝 몰려"

전문공사 시공권 보장 등 촉구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는 20일 '건설 산업 불공정 경쟁 체제 정상화에 대한 결의대회'를 열고 전문건설업계의 위기 상황을 알리고 공동 대응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참석자들은 "불합리한 건설업 상호시장 구조로 영세 전문건설 업체의 생존 기반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전문공사의 전문성 훼손, 무분별한 저가 입찰, 현장 안전과 품질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더 이상 방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업계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종합·전문공사에 필요한 건설업 등록 없이 상대 업계에 해당하는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참석자들은 "전문공사는 전문업체가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며 "역할과 책임에 맞는 공정한 경쟁 질서 회복, 지역 전문 건설업체 보호와 건설산업 안전·품질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남지역 전문 건설업계는 이번 결의대회를 통

해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하는 왜곡된 생산구조의 정상화, 전문공사에 대한 전문업체의 시공권 보장, 현장 안전과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 개선 등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요구했다.

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관계자는 "이번 결의대회는 단순한 행사성 퍼포먼스가 아니라 전문 건설업체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를 사회에 분명히 알리는 자리"라며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중앙회, 전국 시·도회와 연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신세계 오덴세-핀카 콜라보 제품 선보여



광주신세계 본관 8층 오덴세 매장에서 직원들이 패브릭 브랜드 FINCA(핀카)와 콜라보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오덴세는 오덴세X핀카 'Find Your Pattern'이라는 테마로 세라믹과 패브릭 소재를 활용한 테이블웨어 상품들을 판매한다. 이번 콜라보 제품은 레트로한 색감과 패턴을 지닌 것이 특징이다.

전남은 국산·수입 동반 증가

지난해 광주 자동차 시장에서 국산차 등록 대수 가 소폭 줄어든 반면 수입차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은 국산차와 수입차가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20일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가 발표한 '2025년 결산 운행차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광주지역 국산 승용차 운행 대수는 54만 8436대로 전년보다 0.2% 감소했다. 반면 수입 승용차는 8만 2539대로 2.1% 증가했다.

전남의 경우 국산·수입차 모두 성장세가 기록됐다. 전남 국산 승용차 운행 대수는 96만 5875대로 전년 대비 3.7% 늘었고, 수입차는 7만 7138대로

4.9% 증가했다. 국산·수입차 모두 두 자릿수에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하며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 수준을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놓어족과 중소도시 비중이 높은 전남에서 차량 보유 수요가 여전히 확대되고 있는 반면 광주는 이미 포화 단계에 근접하면서 차종과 브랜드 선택이 '양적 확대' 보다 '질적 전환'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광주는 수입차와 친환경차 중심으로 소비가 이동하고 있고 전남은 생활·산업 수요가 동시에 늘며 국산·수입차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라며 "지역별 소비 패턴 차이가 향후 자동차 시장과 서비스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창업 3년 연속 늘었지만 매출·고용은 뒷걸음

중기부 창업 기업 실태조사

전국 창업 기업 수가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매출과 고용은 동시에 줄어들며 창업 생태계의 체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저변은 확대됐지만 실질적인 성장과 고용 창출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창업진흥원이 발표한 '2023년 기준 창업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 창업기업 수는 490만 2000대로 전년보다 1.5% 늘었다. 2021년 이후 3년 연속 증가세다. 전체 중소기업의 59.1%를 차지할 만큼 창업기업 비중도 여전히 높았다.

특히 20~30대 청년층 창업기업은 135만 2000개로 전년 대비 2.2% 증가해 전체 증가율을 웃돌았다. 하지만 외형 성장과 달리 고용과 매출 지표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2023년 창업기업 종

사자 수는 833만 명으로 전년보다 2.2% 감소했다. 평균 종사자 수는 기업당 1.7명에 그쳤다.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 가운데 창업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3.6%로 줄었다.

매출 감소 폭은 더 커졌다. 창업기업 전체 매출액은 1134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 줄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4885.75 (-18.91)
↑ 코스닥	976.37 (+8.01)
↑ 금리(국고채 3년)	3.191 (+0.061)
↑ 환율(US D)	1477.70 (+4.00) <오후 6시 30분 기준>